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음 11월 25일) 제19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빗물 활용 건강한 물 순환관리 착수

전주시,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2020년까지 221억원 투입
식생체류지 조성 등 개선 나서

전주시가 빗물을 활용한 건강한 물 순환 관리에 착수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덕진공원 유역 일원에 이달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빗물의 투수성을 향상시켜 덕진연못 수질개선, 수생태계 등 환경오염 방지와 빗물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는 도시 지역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 순환 구조 왜곡의 대안으로 개발된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 기법이다. 주

요 기술요소는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도랑, 투수성포장 등이다.

시는 덕진공원 유역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로 흘러 버려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빗물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빗물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를 흐르면서 비점오염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덕진연못에 수질개선, 빗물유출 방지를 위해 식생체류지를 조성하고 연못 상류의 불투수면은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추진, 빗물을 땅속이나 하천으로 유입시켜 맑은 물이 흐르도록 개선, 도심 전체 물 순환의 긍정적 기능을 예상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와 물순환 구조개선, 생태경관 가치 향상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맛 좋은 한리봉이 왔어요 10일 오전 정읍시 해외달 영농법인에서 농장주 김병선씨 부부가 아열대 작물인 한리봉 수확을 하고 있다.

“상수도요금 전북이 가장 비싸”

장학수 도의원 5분 발언서 “관리감독 소홀로 대책 절실
전북지역에 한해 정읍이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사진)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상수도요금은 최고 2.4배가, 하수도요금은 무려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지자체가 있는 등 시군별로 편차가 극심하여 충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임실군이 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톤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

고 있고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정읍군의 경우 1톤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톤당 900원으로 12배가 넘는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의 조사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가 나서서 상수도 요금의 시군 편차를 줄여 평준화 및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군이

요금액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상·하수도요금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동법 제169조에는 시군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도지사가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높은 수도요금의 원인을 파악해 요금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현실화를 즉 생산원가대비 수도요금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시군에 따라 수도요금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라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여성 권익신장·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앞장”

한희경 도의원, 의원직 선서

한희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위원이 10일 전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와 함께 본격적인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의원은 의원 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서 그리고 여성위원의 한사람으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일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여러분의 동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행복북한 전북, 위대하고 정의로운 전북,



앞으로도 살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희경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원광대를 졸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제19대 대선 중앙선대위원회 문재인 후보,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상처 치유 우리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 정부와 앞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0억엔 처리 방향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3·6면〉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치유금을 이미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하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도 떳떳하게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

2018년 완주군의회 상반기 의사일정

- 제228회 임시회 2. 20 ~ 2. 28 (9일간)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 제229회 임시회 3. 20 ~ 3. 27 (7일간)
-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
- 제230회 임시회 6. 20 ~ 6. 22 (3일간)
-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